

# 高麗詩話에 비친 시의 理想

## — 4大詩話의 核心 探究 —

張 鴻 在\*

### 목 차

- I. 序言
- II. 不思爲詩·變化自在의 圓熟性
- III. 技巧와 天然性이 相資한 出塵之想
- IV. 意盡의 多樣性
- V. 意不盡의 不傳之妙
- VI. 結 語

### I. 序 言

詩話批評은 심심파적으로 저술된 근대 이전의 독특한 한문수필인 시화에서 그 꽃봉오리를 형성하였으나 시를 위한 비평의식이 투철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비평과 시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루어 왔으나 어딘가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차제에 『白雲小說』·『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을 다시 읽고 일괄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삭을 줍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이들 詩話集에서 각각 추구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기로 하였다. 곧 시의 옹호와 보존에 목표를 두고 또 시학 발전에 기여한 시화비평은 시의 이상을 어떤 것으로 보았을까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시화의 隨筆性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비평적인 면에 치중한 결과 정작 시화가 모색한 핵심을 놓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론보다는 심심풀이로 엮은 수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론에서 벗어난 듯한 문장에서 뜻밖의 핵심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걸어 본다.

---

\* 신구전문대학 교수

## II. 不思爲詩·變化自在의 圓熟性

李奎報는 新意·新語 등의 용어와 아울러 시에 있어서의 독창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말하였다. 따라서 시가 추구하는 理想型도 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어느 누구에게나 새로움의 가치라는 것이 공통된 문제로 등장하겠지만 특히 이규보의 시에 있어서는 이 새로움의 가치를 핵심적 위치에 놓고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새로움의 가치 — 이규보는 확실히 이것을 일찍이 체득하였으며 이것을 표방한 詩作生活을 계속하였으며 그의 詩論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워졌다. 문학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므로 그는 創意를 내세운 것이며 그 언어와 문체도 개성적이어야 하므로 그는 新語를 詩作 및 詩論에 도입한 것이다. 그는 시인이므로 創新詩人이었다. 創新을 주장한 동시에 실천하였다. 이른바 創新主義者이다. 창의력이 부족하고 모방에 급급한 이규보라면 速成을 꾀하는 走筆이나 長篇大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눈 깜짝할 사이에 시를 速成하고 多作해도 하등의 손색도 없게 하였으니 그 능수 능란한 시적 재능을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았으랴. 붓을 잡은 채 302운의 시를 순간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은 창신 이외에는 전혀 접근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규보는 이 창신의 원칙하에서 시의 이상형을 모색하였다. 모방을 기피했기 때문에 綺麗·彫飾의 버릇이 없는 奇古한 乙支文德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吳世才의 힘차고 굳센 시를 好評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綺麗와 彫飾에 치우친 것이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꾸밈이 없는 소박한 시를 이규보는 理想으로 삼았다. 그래서

詩란 본 것에서 感興을 일으킨 것이다.<sup>1)</sup>

한 것은 더욱 시의 꾸밈없는 순수성을 일컬은 말이라 하겠다. 이규보는 陶淵明의 시를

조용하면서 평화스럽고 고요하여 마치 거문고의 붉은 줄과 등성등성한 구멍에서 울려 나는 宗廟祭禮 때의 樂章을 듣는 듯 하여 한번 창하면 세 번 감탄하게 된다.<sup>2)</sup>

하였다. 지나친 수식을 하지 아니한 맑은 시, 고요한 시, 평화로운 시가 이규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 1) 「白雲小說」 14.  
(以下白14. 등으로表記). 詩者 興所見也
- 2) 白15.  
恬然和靜 如清廟之瑟 朱絃疏越 一唱三歎

그러므로 이규보는 ‘詩足清心’<sup>3)</sup>을 믿었다. 시는 苦吟의 결과로는 秀作을 기대할 수 없다. 綺麗에 정신을 집중하는 나머지 氣가 衰微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不思爲詩’를 말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저절로 지어지는 시를 원한 것 같다.<sup>4)</sup> 詩論도 기계적으로 짜낸 것이 아니요 詩作上 體驗을 통하여 自得한 것이라 하였다. 出入往來와 變化가 自在하면서 圓熟한 시,<sup>5)</sup>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이룬 시를 이규보는 모색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綺麗를 꺼리고 自然·恬然·和平한 시를 좋아했지만 詩品은 淸勁·雄豪·妍麗·平淡을 잘 혼합한 것을 기대하였다.

### III. 技巧와 天然性이 相資한 出塵之想

李仁老는 表現技巧로 琢句法의 중요성을 들어 杜甫를 추앙하였고,<sup>6)</sup>

사람의 재주는 그릇이 모나고 둥근 것 같아서 모든 것에 다 구비할 수는 없으나 천하의 기이한 구경거리인 사람의 마음과 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아서 진실로 재주가 뜻을 따르지 못하면 마치 느린 말의 말발굽이 燕나라 越나라처럼 멀리 떨어진 천리 길에 나서는 것 같아서 채찍질을 비록 부지런히 해도 그 멀리 갈 수 없는 것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반드시 연마한 다음에 광채를 드리워 무지개처럼 천고에 빛내었다.<sup>7)</sup>

하여 技巧主義를 내세웠다. 표현기교가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같고 닮는 공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로가 시를 평할 때도 이를 토대로 하여 詞語流麗<sup>8)</sup>·語意俱妙<sup>9)</sup>를 들었다. 그러나

3) 白19.

4) 白24.

余初不思爲詩 不覺率然自作也

5) 白26.

唯其出入往來 變化自在 而達于圓熟也

6) 『破閑集』 卷上21. (以下 破上21. 등으로表記).

7) 破上21.

人之才 如器皿方圓 不可以該備 而天下奇觀異賞 可以悅心目者甚夥 苟能才不逮意 則譬如駕蹄臨燕越 千里之途 鞭策雖勤 不可以致遠 是以古之人 雖有逸才 不敢妄下手 必加鍊琢之工 然後足以垂光虹蜺輝 映千古

8) 破下31.

9) 破下28.

표현기교는 天然美에 앞설 수 없다. 康日用의 시를 평하는 자리에서 ‘흰머리에 꽃 비녀 꽂은 얼굴이 西施의 半化粧만 못하다’<sup>10)</sup>는 예종의 말을 인용한 것은 天然性을 중요시한 증거요 아름다운 詩句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조잡하게 맞추어도 된다는 것은 ‘珠草가 마르지 않고 玉川이 절로 아름다운 것과 같다’<sup>11)</sup> 한 것도 아름다운 시를 천연성으로 연결시키고 그 천연성은 불변의 美라는 것과 같다. ‘시는 마음의 所産 이요,<sup>12)</sup> ‘문장은 天性的 所産’ 이라<sup>13)</sup> 하고 ‘自然成文’<sup>14)</sup>을 말한 것도 이 천연성으로 귀결된다. 결국 표현기교란 것도 천연성 아래 있으니 기교에 능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재주부리지 말고 같고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교의 연마로 천연성에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찍이 그림에서도 같고 닮는 나머지와 천연적인 기교가 서로 도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한 바 있거니와<sup>15)</sup> 시에서도 이런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평 체계를 가진 『破閑集』에서는 어떤 시를 가장 아름답게 보았을까? 말할 나위도 없이 맑고 아름다워서 出塵之想이 있는 것이 시가 아닐 수 없다.<sup>16)</sup> 또 자신의 시에서도 이를 추구하여 詩中 畫의 경지로 올려놓으려 하였다.<sup>17)</sup>

#### IV. 意盡의 多樣性

崔滋는 이규보를 격찬한 만큼 이규보의 시가 최자에게는 ‘시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 
- 10) 破上18.  
白頭花細滿面 不若西施半粧
- 11) 破上22.  
正如珠草不枯 玉川自美
- 12) 破下18  
詩源乎心者
- 13) 破下23.  
蓋文章得於天性
- 14) 破中10.
- 15) 破上11.  
亦彫琢之餘 盤薄之巧 相資以成
- 16) 破上2.  
清婉有出塵之想
- 17) 破上24.  
其山光水色歷歷 如在跟前 此古人所謂詩中畫也

다. 무엇보다도 象外에서 逸氣를 얻은 이규보의 走筆長篇이라든가<sup>18)</sup> 警絶新意로 충만한 이규보의 詩稿를 최자는 높이 평가하였다.<sup>19)</sup> 『補閑集』 도처에서 新意를 優位에 두었다. 또한 말보다는 뜻으로 지은 시를 더 낫다고 한 것은<sup>20)</sup> 主意論의 비평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자의 비평원칙은 主氣論이므로 氣格을 앞세웠다. 따라서 氣豪意豁의<sup>21)</sup> 評語를 썼다. 최자는 用事 없이 바로 天心을 뚫을 것을 말했으니<sup>22)</sup> 이규보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用事를 한 시일지라도 意外之喻를 最警으로 본 것이<sup>23)</sup> 최자의 本意다. 豪逸<sup>24)</sup> · 豪壯<sup>25)</sup> · 含蓄<sup>26)</sup> · 和裕有味<sup>27)</sup> · 高深<sup>28)</sup>과 같은 評語는 意氣論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시의 理想型이 되려면 ‘意盡’<sup>29)</sup>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최자는 意氣에 중점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新意와 義(意)盡에 목표를 둔 비평을 전개하였다.<sup>30)</sup> 이 이론의 토대 위에서 최자의 시의 이상형은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補閑集』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好評한 시는 맑고 깨끗한 시이다.

18) 『補閑集』 卷中23. (以下 補中23. 등으로 表記).

19) 補中19.

20) 補中38.

兩首之言 不如一首之意

여기서 兩首는 李允甫의 시요, 一首는 陳澤의 시다.

21) 補上33.

22) 補中11.

文順公不用事 不取比 直穿天心已而

23) 補中11.

眉叟用龍陽事 此詩家意外之喻最警

24) 補上21.

25) 補上22.

26) 補上29.

27) 補上41.

28) 補下26.

29) 補上45.

30) 補上31.

以辭簡義盡爲佳

作 者	評 語	出 典
權 適	清駛之骨	上 20
鄭 知 常	語韻清華	上 21
皇 祖	淡古無痕迹	上 28
崔 致 遠	清婉可愛	上 32
崔 忠 獻	詩語清婉	中 2
金 仁 鏡	天資清婉 詩語似之	中 5
金 克 己	辭意清曠 辭意清熟	中 13
李 仁 老	清詩	中 15
李 仁 老	巧琢清玩	中 16
李 奎 報	清新俊逸	中 24
李 由 之	安豪李清 ☆安은 安淳之	中 34
李 仁 老	用事必以辭語清新	中 38
大覺國師	平淡而有味	下 22
金 仁 鏡	清婉	下 41

이 도표로 보아 최자는 清淡에 얼마나 치중했던가를 알 수 있다. '新意'와 '意盡'을 근간으로 하여 '清淡'의 枝葉을 형성한 시를 가장 좋아하였다. 그러나 詩評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詩論에서는 좀 양상을 달리하여 포괄적으로 시의 理想論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清淡에 기울어졌지만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더 크고 넓고 다양한 것이었다. 이것은 최자가 이인로와 이규보를 동시에 비평하는 자리에서 '學者들이 다만 韻語의 清婉함을 취하고 그 뜻을 잊고' 이인로를 앞세우는 것을 비난하고 이규보의 마음을 깨우치는 시의 입장에 선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최자의 견해를 직접 확인해 보자.

新奇絕妙·逸越含蓄·陰怪俊邁·豪壯富貴·雄深古雅한 것이 으뜸이요 精雋迥繁·爽豁清峭·飄逸勁直·宏瞻和裕·炳煥激切·平淡高遠·優閑夷曠·清玩巧麗한 것이 다음이요 生拙野疎·蹇澁寒枯·淺俗蕪雜·衰弱徑靡한 것이 病이다.<sup>31)</sup>

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면 무난한 시로 보았다고 하겠다. 위에서 최자가 가장 많은 호평을 보낸 清淡은 次項에 있지 上項에는 없다. 이로 보건대 현실과 이상이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詩評과 詩論의 거리를 느끼게 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補閑集』에서 비평 대상으로 한 시가 주로 清淡이었고 詩論의 理想에 미치는 작품이 적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31) 補下13.

全文參考.

모순이 있을 수 없다. 현실과 이상이 꼭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清淡도 好評에 속하지만 上項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것을 시의 理想으로 보았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따라서 新奇絶妙·逸越含蓄·陰怪俊邁·豪壯富貴·雄深古雅한 시가 최자에게는 이상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意氣論과 결부시킨 評語인 豪逸·豪壯·含蓄·和裕有味·高深과도 一脈相通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비평으로서의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또 이를 次項과 아울러 관찰하면 그 평어가 매우 광범하여 감피를 잡을 수 없게 하고 장점을 다 나열하는 흠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를 묶어서 시의 理想型을 다루는 한도에서 다양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동시에 최자가 모색하는 시의 이상을 ‘意盡’에 의한 다양성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 V. 意不盡의 不傳之妙

李齊賢의 문학비평은 이규보·이인로·최자 등의 문학비평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열세이지만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의 批評眼은 좀더 특이하고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온건한 中庸의 비평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시에 있어서의 이제현의 평가는 더욱 그러한 점이 뚜렷하다. 酷評을 피하고 완곡하게 남의 시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제현의 持論으로 보인다.<sup>32)</sup>

이제현이 시를 보는 눈은 보다 치밀하고 심원한 바가 있다. 표현된 언어 자체로서 시를 관찰하지 않고 言外에서 시의 本意를 이해하려 하였다. 언어로 표현은 하되 그것만으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높고 먼 뜻을 가진 것이 妙味라는 것이다.

옛사람의 시는 눈앞의 경치를 묘사하였지만 뜻은 말밖에 있으므로 말은 다 하였으나 뜻은 다하지 않았다. 도팽택(도연명)의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어 들고 우두커니 남산을 바라보네> 한 시와 진간재(진여의)의 <문을 여니 비 온 줄 알겠고 늙은 나무 반쯤 젖어 있네> 한 유가 이것이다. 나는 홀로 <못 독에 봄 풀 돋는다> 한 시를 사랑하는데 전할 수 없는 오묘함이 있기 때문이다.<sup>33)</sup>

하여 陶淵明·陳與義 같은 옛사람의 ‘말은 다 하였으나 뜻은 다하지 않음’ 뜻을 흠선했다. 더구나 한때 이규보가 ‘警語가 되지 못한다’고 평한 梅聖俞의 ‘못 독에 봄 풀 돋는다’를 이제현은

32) 拙稿, 「樸翁稗說의 批評意識考」 『崇實語文』 第2輯(서울: 숭실대, 1985), p.170.

33) 『樸翁稗說』 後集-14. (以下 樸後-14. 등으로 表記).

古人之詩 目前寫景 意在言外 言可盡而味不盡 若陶彭澤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陳簡齋 開門知有雨 老樹半身濕之類 是也 予獨愛池塘生春草 以爲有不傳之妙

‘不傳之妙’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제현의 詩의 眼目은 詩語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시어 뒤에 숨은, 말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妙意를 깊이 있게 통찰한 것이라 하겠다. 이규보가 시어 자체만으로 매성유의 시를 논급한 데 비하여 이제현은 시어보다는 言外에 숨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詩意까지 아울러 평가했다. 語와 意에 두루 創新을 말한 이규보의 詩論으로서의 千慮一失이 아닐 수 없다. 『白雲小說』에 따르면 오히려 警語임을 말하기 위한 逆說의 表現으로 볼 수 있다. 徐居正은

詩를 짓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詩를 알기란 더욱 어렵다. 李文順이 일찍이 옛사람의 詩를 評할 때 梅聖俞의 詩를 좋지 않다 하고 <못 독에 봄 풀 던는다>는 警語가 되지 못 한다고 했다. 그리고 徐凝의 「瀑布」 詩를 묘하다고 했으나 東坡는 徐凝의 詩를 나쁘다고 했다. 歐陽子是 梅聖俞의 시가 잘 되었다고 하면서 「春草」의 詩句는 古今絶唱이라 했다. 李文順의 批評이 이와 같으니 시를 아는 일이 어찌 어렵지 않다고 하겠느냐?<sup>34)</sup>

이규보 같은 慧眼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 警策은 없는 것으로 보고자 하나 그의 평가가 이리 하니 知詩가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 최자의 『보한집』에서는 「春草」 詩가 ‘意氣不足’ 이라 해서<sup>35)</sup> 이규보가 싫어했다고 하니 梅聖俞의 시는 구제 받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규보는 뒤늦게

나는 梅聖俞의 시를 읽고 혼자 마음속으로 대단찮게 여겼으며 옛사람들이 詩翁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겉으로는 유약한 듯 하나 속은 단단한 힘이 있어서 詩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것이었다. 梅聖俞의 시를 안 연후라야 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梅聖俞의 시는 빛을 잃은 셈이다. 여기에 이제현의 변증이 없었던들 매성유의 이름은 명예회복의 길조차 잃을 뻔했다. 宋나라의 葉夢得은

34)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58.

作詩非難 而知詩爲尤難 李文順嘗評古人詩 以梅聖俞爲不佳 池塘生春草 爲非警語 而徐凝瀑布詩爲妙 然東坡稱徐爲惡 歐陽子以梅爲工 春草之句 古今絶唱 而李之評品如是 知詩豈不爲難乎

35) 補中46.

3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1, 「論詩說」.

予讀梅聖俞詩 私心竊薄之 未知古人所以號詩翁者 及今閱之 外若柔弱 中含骨鯁 其詩中之精俊也 知梅詩然後 可謂知詩者也



<못 독에 봄 풀 돋고 정원 버들은 우는 새로 변한다>를 세상에서는 이 말의 공교로움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개 기이함으로써 詩語를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工巧한 것은 바로 아무런 用意하는 없음에 있고, 창졸간에 상대한 景物을 빌어서 시를 이루어, 잇고 깎고 하는 일을 빌지 않았으므로 常情이 능히 이르는 바가 아니었다. 詩家의 妙處는 마땅히 이로써 근본을 삼아야 함에도 생각이 막히고 말이 어려운 것을 가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sup>37)</sup>

하여 이 시의 묘한 점은 전혀 用意하는 바가 없는 데 있다고 보았다. 卽景을 詩化한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규보가 新意를 最上으로 알았다면 첫눈에 工巧함을 발견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제현의 시론은 歐陽脩의 『六一詩話』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시론을 확립한 것이다.<sup>38)</sup> 이것이 바로 이제현이 이상으로 내세운 詩觀이라 하겠다. 이제현의 여유 있고 시적 안목을 지닌 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이제현이 본 시의 이상은 詩意를 言外에 두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目前寫景’의 사실성과 ‘意在言外’의 함축성을 조화 있게 표현하여 ‘言可盡而味不盡’, 곧 ‘不傳之妙’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훌륭하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없는 詩語를 사용하게 되면 더 새로운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시의 맛은 음미하면 할수록 새롭고 끊임없이 향기로운 수 있다. 최자는 ‘意盡’을 말했음에 반하여 이제현은 ‘意不盡’을 말하여 양자간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현은 이 ‘意不盡’을 통하여 시의 맛을 남기려 하였다고 본다.

## VI. 結 語

고려 4대 시화 저자별로 시의 理想을 찾아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보는 創新으로 不思爲詩의 速成을 과시하는 가운데 변화자재의 圓熟性을 말하였고, 이인로는 鍛鍊으로 技巧와 天然性이 相資할 목표로 하면서 詩中畫의 出塵之想을 말하였으며, 최자는 意盡의 다양성을 말하였고, 이제현은 意不盡의 不傳之妙를 말하였다. 최자의 경우, 清淡을 말하다가 새롭고 기이하며

37) 葉夢得, 『石林詩話』 卷中.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世多不解此語爲工 蓋欲以奇求之耳 此語之工 正在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 借以成章 不假繩削 故非常情所能到 詩家妙處 當須以此爲根本 而思苦言難者 往往不悟

38) 歐陽脩는 『六一詩話』에서 梅聖俞와의 대화를 통하여 ‘舍不盡之意’를 말하였다. 이 영향은 李齊賢의 ‘言可盡而味不盡’을 낳아, 寫實性和 含蓄性을 동시에 말하는 李齊賢 獨自의 詩論을 이루었다고 본다.

뛰어나고 미묘하며 기타 다각적으로 우수함을 기도하였으니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이를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묶었다.

詩話에는 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詩學 즉 시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제반 사항을 두루 언급하고 있다. 본격적인 詩論과 詩評이 있는가 하면 一言蔽之式의 詩觀과 시적 견해를 표명한 斷想이나 寸評·斷評 등이 있어서 시화는 단순한 이야기로 간주되는 詩談을 제외하고서도 비평서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해 왔다. 필자는 시화의 이러한 비평 요소를 두루 詩話批評으로 命名하여 계속 다루어오고 있다. 시화비평은 비평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이상과 옹호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여 시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시화비평의 千言萬語에서 몇 마디의 축약된 언어로 표현한 시의 관점을 찾겠다는 것이 이 글이 의도하는 바이다. 일단 시화 찬술자가 모색한 시의 이상형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시화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내려보았다. 고려시대의 4大詩話書를 다시 정밀 검토해 본 결과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詩論과 評語가 누락된 것을 깨닫고 이를 이삭주워 補正한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 참 고 문 헌

- 李仁老 : 『破閑集』  
崔 滋 : 『補閑集』  
徐居正 : 『東人詩話』  
李齊賢 : 『樸翁稗說』 · 『益齋亂藁』  
李奎報 : 『白雲小說』 · 『東國李相國集』  
高敬植 : 『高麗時代 漢文學 研究』, 서울 : 집문당, 1995.  
拙著 : 『高麗時代 詩話批評 研究』,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7.

## Abstract

### Poetic Ideals on the Poetry Tales of Koryo Dynasty

- A Study of the Core of Four Poetry Tales -

Chang, Hong-jae

In this thesis, the core of four poetry tales will be analysed. Baecwoonsoeul, Pahanjip, Bohanjip and Yokongpaeseul respectively. The subject of the essay is "what is the poetic ideal of the criticism on the Poetry Tales of Koryo Dynasty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and the support in the poetry field.

Lee Kyu-bo focused on the poetic ideals under the principle of originality in poetry. He wanted the poetry which comes out naturally without being noticed. He was interested in pursuing poetry of spontaneity and free — associa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Lee In-ro advocated to approach the nature of poetry by practicing technique on a technical basis and tried to reach a stage of the picture in the poetry. Poetry has the poetic sentiment which is clear and beautiful and it can be free from the trammels of ordinary life.

Choi Ja searched for the idea of poems about variety in expressing all of the meanings of poetry.

The poetic ideal of Lee Je-hyun, is making unknown of the meaning of the poetry outspokenly. Between reality of describing scenery in the world and hidden meaning has a harmony in expressing. So it can all be spoken but the meaning can't be completely expressed, it is the abstruse principle.

Choi Ja and Lee Je-hyun,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Choi Ja pursued expressing all of the meanings, On the contrary, Lee Je-hyun insisted on not all of the meanings.

In short,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look for the poetic ideals in the core of the Poetry Tales.